조선로동당창건 특집

5호 주체109(2020)년
(9－10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 2

조선로동당창건 75돐 성대히 경축 8

절세의 위인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삶의 새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고 20

승리를 더 큰 승리로, 기적을 더 큰 기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하여 26

조국의 현실

자력갱생으로 올려가는 생산활성화의 동음 28

독특한 맛과 향기로 이름난 《성천향초》의 생산지를 찾아서 30

철산땅에 펼쳐진 30여정보의 왕밤나무림 31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집 32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종군작가 34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가는 날파람처녀 36

일기장에 비낀 어린 소녀의 꿈 37

《매봉산》 신발이 인기를 끄는 세가지 리유 40

8

20

28

31

36

해외동포소식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앞장서겠다 38

앞표지: 환희로운 10월의 밤하늘에 거세차게 나붓기며 서서히 게양되는 우리의 국기

뒤표지: 안국사의 은행나무

조 선 로 동 당 창 건

특 집

◇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

◇ 조선로동당창건 75돐 성대히 경축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74(1985)년 4월

10월 10일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이 되는 날이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5년간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부국강병의 대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강령을 높이 추켜들고 력사의 려정을 줄기차게 이어오며 사회주의집권당의 최장력사를 당당히 아로새기였다.

더없이 친근하고 위대한 당이 있다는 커다란 행복과 긍지를 가슴뿌듯이 새겨안는 뜻깊은 이날 공화국인민들은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끄시여 나라의 존엄과 지위를 력사상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영원불멸한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열화같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결정서초안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주체34(1945)년 12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이 깃들어있는 당창건사적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61(1972)년 4월

조선로동당 제2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주체83(1994)년 4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69(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 참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99(2010)년 9월

당창건기념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84(1995)년 10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불패의 당,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당창건기념탑

조선로동당창건 75돐 성대히 경축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관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공화국에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 전인민적인 경사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대회와 군중시위, 청년전위들의 홰불행진, 축포야회, 경축연회, 중앙사진전람회, 국가미술전람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였으며 여러 극장들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도 있었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각지에 모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는 각계층 인민들의 물결이 세차게 굽이치는 속에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며 피해지역들에 일떠세운 사회주의 선경마을들에서는 로동당만세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졌다.

10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온 나라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울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동지들!

오늘 우리모두는 일심전력하여 마련한 값진 성과와 로력적열매들을 안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간고한 투쟁의 련속이였고 수없이 많은 격난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나온 우리 당의 75성상이 다 그러하였지만 특별히 올해는 정초부터 하루하루, 한걸음한걸음이 예상치 않았던 엄청난 도전과 장애로 하여 참으로 간고하고 힘겨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것을 용감히 이겨내고 자랑스럽고 떳떳한 마음으로 뜻깊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인이 경탄할 이 화폭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고 막아나섰던 온갖 재앙들이 제압되고 우리가 내세웠던 정의로운 투쟁목표들이 빛나게 달성되였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우리 당의 75번째 생일을 성대히 맞이하고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자기 당의 생일을 전체 인민이 기쁨의 명절로, 대경사의 날로 성대히 경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온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굽이치는 이처럼 벅차고 환희로운 밤 이 자리에 서고보니 전체 인민에게 무슨 말씀부터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가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싶은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이 한마디뿐입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중에서

백전백승의 영용한 기개를 떨치며 지축을 울리는 열병대오들에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10. 1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세
323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의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해가는 우리 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군중시위

위대한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흠모의 정이 뜨겁게 굽이친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대회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당 제8차대회를 향하여 폭풍노도쳐 나아갈 계승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홰불행진

경사스러운 10월의 밤하늘에 황홀한 불보라를 펼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축포야회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삼지연관현악단공연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장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연회가 진행되였다.

10월의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는 크나큰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평양에서 막을 올린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0》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에 펼쳐진 웃음무대 《웃음많은 우리 집》 공연의 한 장면과 관람자들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삶의 새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고

태풍9호에 의한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현지에서 소집하시고
피해지역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열과 정을 안으시고 멸사복무의 낮과 밤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불행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것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피해복구전투를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태풍9호에 의한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현지에서 소집하시고 피해지역들을 돌아보신 다음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6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자연의 광란이 아무리 사납고 우리에게 도전과 시련이 중중첩첩 막아나선다 해도 일심단결, 군민일치의 위대한 전통의 기치를 들어쥐고 반드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피해복구건설현장과 김화군피해복구현장,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비롯한 자연재해복구건설장들을 쉬임없이 찾고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각지의 피해복구전선들에 급파되여 불꽃튀는 철야전투를 벌리며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해나가고있는 인민군군인들과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으며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찾으시여서는 이곳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붙이고 부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마음속깊이 축복하시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삶의 새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헌신에 떠받들려 자연의 광란이 휩쓴 이 땅에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보란듯이 일떠서 새집들이로 흥성일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6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건설중에 있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축복속에 개성시와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의 피해지역들에 새로 일떠선 마을들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승리를 더 큰 승리로, 기적을 더 큰 기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를 사회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전당, 전국, 전민이 8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당 제8차대회를 빛나게 맞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전체 인민들은 과감한 련속공격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기적에서 더 큰 기적을 쟁취하여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의 불가항력적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할 애국의 의지를 안고 80일전투에 총궐기하였다.

전화위복의 기적적성과를 쟁취함으로써 80일전투의 승리를 담보해갈 기세드높은 수도당원사단의 전투원들

80일전투에 총매진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자랑찬 승리로 맞이하기 위한 평양시군민련합집회가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80일전투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할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전위들

자력갱생으로 울려가는 생산활성화의 동음

- 평양326전선종합공장 -

독특한 맛과 향기로 이름난 《성천향초》의 생산지를 찾아서

- 평안남도 성천군 암포리 -

예로부터 썰어놓으면 그 빛갈이 마치 금실같다고 하여 《금실담배》, 독특한 향기로 길손들도 불러들인다고 하여 《성천향초》로 불리워온 성천담배.

유명한 성천담배로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성천땅에 풍요한 담배작황이 펼쳐졌다.

봄내 여름내 품들여 모를 심고 가꾸어온 포전들에서 담배잎을 따는 녀인들의 얼굴에도, 건조장에서 정성들여 가공하는 농장원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어려있다.

사진 장창욱, 글 윤금철

철산땅에 펼쳐진 30여정보의 왕밤나무림

- 평안북도 철산군 학산리 -

또글또글하게 잘도 여문 밤알들이 밤송이에 꽉 들어차있다.

가지마다에 탐스럽게 달린 왕밤송이들이 선들바람이 한번 슬쩍 불기만 하여도 후두둑 떨어질것만 같다.

보기만 해도 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지는 왕밤나무림의 가을풍경이다.

잡관목만 무성하던 야산들에 수만그루의 왕밤나무모들을 심고 애지중지 가꾸어온 철산땅의 주인들이 올가을에도 왕밤수확으로 드바쁘다.

사진 최광혁, 글 장윤정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집

- 화초전시장 -

화초전시장은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자리잡고있다.

전시장에서는 관상적효과가 높은 다양한 형식의 장식용화초제품들을 전시해놓고 손님들에게 봉사하고있다.

전시된 장식용화초제품들가운데서도 화초의 자연적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특유의 매력으로 감흥을 자아내는 말린꽃제품들은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다.

금시라도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화원에 들어서는듯 한 느낌을 주는 이곳 전시장을 사람들은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집이라고 부르며 자주 찾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송영

당에서는 김사량이 전사한지 6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여 지난 6월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김 정 은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종군작가

- 전 조선인민군 종군작가 공화국영웅 김사량 -

종군작가 김사량.

해방전 평양에서 생활이 비교적 넉넉한 가정의 둘째아들로 출생한 그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를 다녔고 일본으로 건너가 대학공부를 하면서 문학작품창작을 시작하였다.

처녀작인 단편소설 《토성랑》(1936년)에 이어 여러편의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이후 참군을 결심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 만주광야를 헤매이다가 중국 연안에서 장편기행문 《노마만리》(1945년)를 썼다.

해방후 조국에 돌아온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믿음속에 북조선예술총련맹(당시) 집행위원, 국제문화국장, 평남도예술련맹(당시) 위원장의 사업을 하면서 첫 수령형상극작품인 희곡 《뢰성》(1946년)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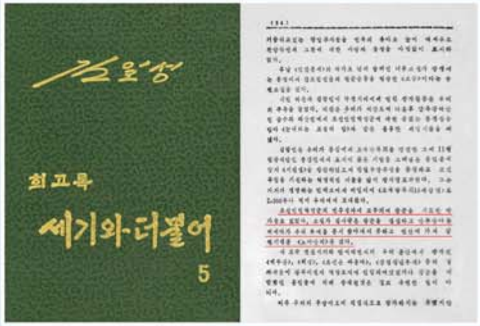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의 길에 나선 그는 남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종군기 《우리는 이렇게 이겼다》, 《바다가 보인다》 등을 련이어 써내여 인민군용사들과 후방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켰으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지리산인민유격대에 들어가 적후투쟁을 벌리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며 열렬히 칭송한 재능있는 작가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작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전사한 혁명적인 작가였다는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60여년전에 전사한 그를 공화국영웅으로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시였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한 종군작가의 이름이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과 의리에 떠받들려 이렇게 영웅의 값높은 부름으로 후대들의 기억속에 새겨지게 되였다.

글 한진아

김사량선생의 가족사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김사량선생에 대하여 회고하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김사량선생에게 수여된 공화국영웅칭호증서

김사량선생이 창작한 희곡에 기초하여 만든 연극 《뢰성》(왼쪽)의 한 장면과 그의 작품집들(우)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은 김사량선생의 자손들 (2013년 9월 촬영)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가는 날파람처녀

- 평양시태권도선수단 인민체육인 박미향선수 -

제8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시상대에 오른 박미향선수

3중태권도세계선수권보유자이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나 공화국의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된 평양시태권도선수단 박미향.

어릴 때부터 영민하고 뛰여난 운동감각을 지녔던 그가 처음 익힌것은 소학교 예술체조소조실에서의 체육무용동작들이였다.

이후 평양학생소년궁전 태권도소조에서 앞날의 태권도선수로서의 첫걸음을 뗀 그는 이악하게 노력하여 14살때 제10차 정일봉상전국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당시)에서 1등을 하였으며 이 나날 국제경기에도 출전하여 순위권에 입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시태권도선수단에서 선수생활을 하는 과정에 자기의 특기기술을 더욱 련마한 그는 제1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녀자개인맞서기 63kg급경기에서 각각 우승하였으며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녀자개인맞서기 77kg이상급경기에서 또다시 1등을 쟁취하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로부터 세계적인 강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로동자가정의 평범한 소녀였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들도 미처 몰랐던 재능의 싹을 고이 키워 활짝 꽃피워준 고마운 조국을 금메달로 더욱 빛내여갈 일념안고 오늘도 그는 훈련에 박차를 가해가고있다.

사진 라춘송, 글 한진아

일기장에 비낀 어린 소년의 꿈

- 평천구역 성안소학교 김권융학생 -

《…

텔레비죤에서 본 새로 일떠선 농촌살림집들이 정말 멋이 있었다.

그런데 새집들이를 하는 기쁜 날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춤을 추면서 모두 울었다.

유치원시절부터 쓴 김권융학생의 일기장들

우리 아이들은 좋으면 웃는데 어른들은 왜 울가?

큰물피해로 모두 집을 잃었다가 더 크고 멋있는 집을 지어주신 아버지원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럴거야.

오늘 밤엔 시라도 쓰고싶다.》

권융이가 쓴 일기의 한토막이다.

2살때 벌써 우리 글을 익힌 그는 유치원시절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다.

흔히 보는 사물현상속에서도 무엇인가 엉뚱한것을 발견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하려는 그의 어른스러운 사색이 하루하루의 일기속에 깃들었다.

이 나날 권융이는 많은 동요, 동시들을 창작하였으며 글작품집 《내 조국의 생일날》을 비롯하여 7건의 작품집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려 기쁨드리는 영광도 지녔다.

오늘 두터워지는 일기장과 더불어 꼬마시인의 푸른 꿈도 무럭무럭 커가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송영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앞장서겠다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한길수 -

이번에 공화국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행사들을 TV로 보면서 나는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더우기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있는 몹쓸 전염병으로부터 어떻게 하나 조국인민들을 지켜내고 큰물과 태풍피해를 입은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그리도 심려하시며 현명한 대책을 세워주시고도 경축열병식장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거듭거듭 외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그 영상을 우러르며 나는 눈굽이 젖어드는것을 걷잡을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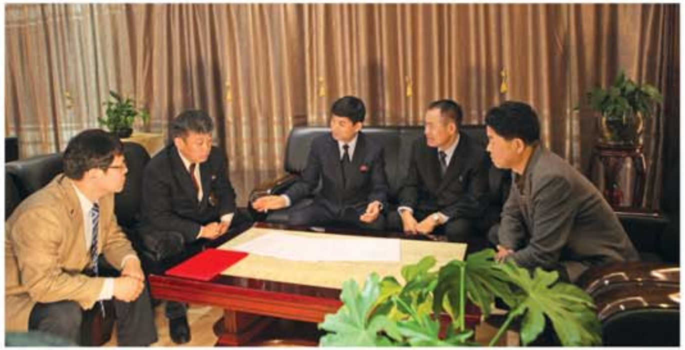
그 어떤 모진 풍파가 닥쳐와도 온 나라가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 누구도 넘볼수 없는 최강의 군력을 비축한 강위력한 내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폐부로 절감하였다.

나는 이번에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행사들을 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내 조국의 앞날은 더욱 휘황찬란하다는것을 굳게 확신하였다.

나는 《백두-한나》잡지를 통해 조국의 소식을 재중동포들에게 제때에 알려주어 그들이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의 넋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

한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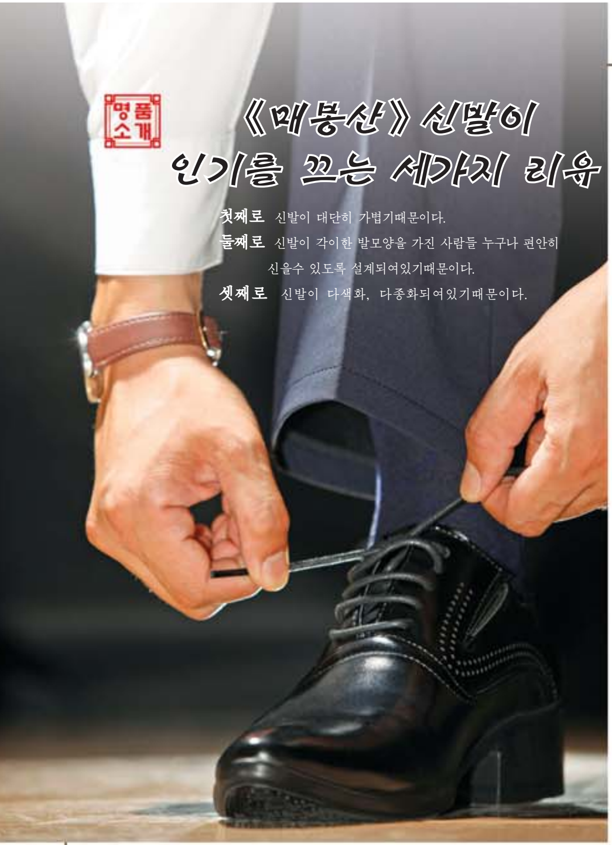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행사소식을 잡지에 싣기 위한 편집사업을 하고있는 한길수국장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함께 있는 한길수국장(오른쪽으로부터 두번째)

선전사업을 맡은 일군으로서의 책임감을 안고

동포들에게 애국의 넋을 심어주는 도서들을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



명품소개

《매봉산》신발이 인기를 끄는 세가지 리유

첫째로 신발이 대단히 가볍기때문이다.
둘째로 신발이 각이한 발모양을 가진 사람들 누구나 편안히 신을수 있도록 설계되여있기때문이다.
셋째로 신발이 다색화, 다종화되여있기때문이다.

질좋은 《매봉산》신발을 생산하는 원산구두공장

력사유적

고구려벽화무덤과 유물들 새로 발굴

황해남도 안악군 월지리에서 새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의 봉분

최근 황해남도 안악군 월지리에서 고구려벽화무덤과 유물들이 새로 발굴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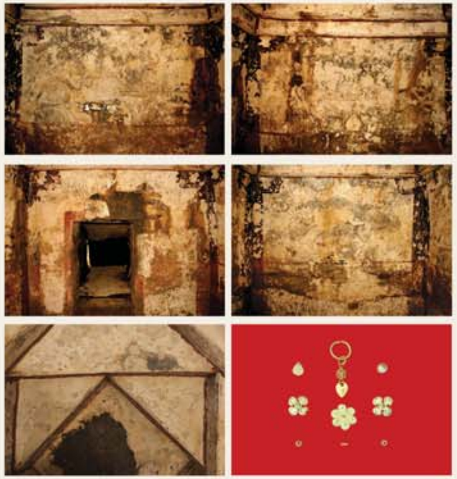
이번에 사회과학원에서 발굴고증한 고구려벽화무덤들에서는 사신도와 지금까지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들에서 볼수 없었던 별자리, 련꽃무늬, 구름무늬, 련꽃잎, 보리수, 거북잔등무늬 등 일부 그림부분들이 발견되였으며 정밀하게 가공된 금귀걸이와 꽃잎모양의 장식품을 비롯한 9점의 금장식품들도 나왔다.

무덤벽화들에 반영된 별자리들과 환상적인 그림들 그리고 금귀걸이를 비롯한 유물들은 당시 사람들의 천문학수준과 신앙관념, 발전된 금속세공술을 잘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안악군 월지리에서 발굴된 벽화무덤들이 6세기 전반기에 축조된것으로 확증하였으며 고고학분야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심의평가하였다.

사신도주제의 고구려벽화무덤이 안악군에서도 발굴됨으로써 천년강국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옳바른 리해를 주고 우리 민족문화의 단일성, 공통성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할수 있게 되였다.

글 장윤정



고구려벽화무덤들에서 발굴된 다양한 주제의 벽화들과 유물들

❖ 루계 400 ❖ 낸곳 통일화보사 ❖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ㄱ-1489ㄷ

ISSN2305 8544

9 772305 854008